

# 건설자금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최 용 남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당과 혁명앞에는 년대와 년대를 뛰어 넘어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여야 할 중대한 시대적과제가 나르고있다. 이 시대적, 력사적과제를 수행하는데서 건설사업을 혁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더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더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이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야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줄수 있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면 경제관리에서 건설자금공급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건설자금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우선 사회주의사회에서 건설의 발전이 그를 위한 자금공급에 의해서만 원만히 이룩될수 있는것과 관련된다.

자금공급은 사회주의국가가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보장해주는 자금보장의 기본형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생산과정은 화폐자금의 운동을 동반한다. 사회주의적재생산

과정에서 화폐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화폐자금의 운동형태를 취한다.

화폐가 사회경제생활에서 일반적등가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화폐자금은 재생산과정에 종사하는 화폐적밀천을 대표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생산과정의 순조로운 진행과정은 바로 화폐적밀천인 자금의 원활한 운동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현물운동과 자금운동이 서로 맞물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건설물의 창조과정은 그에 맞게 투자자금이 조성되고 그것이 새로운 고정재산의 조성에 투자되어야만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

건설의 대번영기는 건설물의 끊임없는 창조과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화폐자금, 건설자금의 공급에 의하여 보장되게 된다.

건설자금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건설부문의 특성과 관련된다.

사회생산물을 현물적으로 창조하는 생산부문인 건설부문의 생산활동은 공업부문이나 농업부문의 생산활동과 구별된다. 건설물의 창조과정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며 창조한 생산물, 건설물은 위치를 변경시킬수 없다.

건설로동에 의하여 마련되는 건설물은 나라의 귀중한 고정재산으로 되며 그것은 경제생활에서 생산적토대로 기능하거나 인민들의 생활조건, 문화후생시설로 기능한다. 이러한 건설작업과 건설생산물의 특성으로 하여 건설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사업은 일반사회생산물의 생산과정에 대한 자금공급처럼 이루어질수 없다.

한편 건설부문에 투자한 자금은 건설물

이 완공되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잠겨있게 되며 그것은 사회적인 자금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자금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은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건설자금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자금의 긴장성과도 관련된다.

자금의 긴장성은 조성된 자금에 비하여 더 많은 자금수요가 제기될 때 조성된다.

나라의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자금문제는 언제나 긴장하다. 특히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진행하고있는 조건에서 한 톨한푼의 자금이 더없이 귀중하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고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건설은 일반적으로 방대한 자금적수요를 제기하며 투자된 자금은 건설물의 설계 단계로부터 완공단계에 이르는 전기간 잠겨있으면서 사회적자금회전에서 리탈되게 된다.

건설자금공급사업을 개선하면 주어진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자금의 긴장성을 해소하고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다.

건설자금공급사업을 개선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설계, 시공, 건재생산의 일체화를 보장할수 있도록 자금공급사업을 진행하는것이다.

설계, 시공, 건재는 건설의 3대요소이다. 건설부문에서 훌륭한 건축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비결은 설계와 시공, 건재의 3대요소를 옹계 결합시키는데 있다.

국가예산지출의 견지에서 보면 설계에 대한 자금지출은 설계사업비로, 시공에 대한 자금지출은 기본건설투자으로 이루어지며

건재생산에 대한 자금지출은 건재생산기업소들의 생산자금으로 보장된다. 그러므로 설계와 시공, 건재생산의 일체화를 보장하자면 이러한 자금지출의 호상관계를 바로 타산하고 그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와 시공, 건재생산에 대한 자금지출의 일치성을 보장하자면 우선 자금지출규모를 바로 타산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지출에서 설계사업비규모를 바로 타산하여야 한다. 건축설계는 건설의 선행공정이며 작전도이다. 설계는 건축대상의 규모와 구조 및 시공과 관련된 기술경제적내용을 규정한 건설의 기본문건이다. 따라서 설계를 건설에 앞세워 작성할수 있도록 건설설계사업비를 바로 규정하고 국가예산에서 미리 예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설계사업비는 건설설계작성과 관련한 모든 지출을 금액으로 규정한 종합적인 자금지출규모이다. 건설설계사업비는 내용에 따라 설계작성비와 기타비로 나누어 타산할수 있다.

건설설계작성비에는 대상설계작성비, 표준설계작성비, 기술과제작성비, 측량 및 지질조사비, 전망설계작성비, 건설기준작성비, 시공조직작성비 등이 속한다.

기타비에는 설계원(측량원)들이 제기된 대상들에 대한 타산과 시공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시공도면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킨다.

건설설계사업비타산에서는 기타비를 극력 줄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국가예산지출에서 시공에 대한 자금지출규모를 바로 타산하여야 한다. 건설시공은 건설의 기본공정이며 시공에 의하여 건설물이 완공된다. 시공에 대한 자금지출은 건설대상별로 기본건설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대상별기본건설투자는 지출요소별로 타산하여 종합하는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다.

기본건설투자의 요소별구성에는 건설 및 조립작업비, 생산준비비, 설비비, 비품비, 기타 건설비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건설 및 조립작업비를 바로 타산하고 기타 건설비를 극력 줄이도록 하는것이다.

건재생산에 드는 자금지출규모는 건재 생산규모와 단위당 지출규모에 의하여 타산할수도 있고 건재생산기지들에서의 생산 자금지출규모와 지출단위당 건재생산규모에 의하여 타산할수 있다. 건재의 생산규모에 의한 방법은 주로 건재생산기업소들에 생산계획이 주어진 경우에 적용할수 있으며 자금지출단위당 생산규모에 의한 방법은 건재생산기업소들에서 생산자금의 규모가 주어진 경우에 적용할수 있다.

설계와 시공, 건재생산에 대한 자금지출의 일치성을 보장하자면 또한 연속성이 이루어 지도록 시간적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당해년도 설계와 시공, 건재생산에 대한 자금지출의 규모가 바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자금의 지출시기는 서로 달리 진행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설계만을 앞세워 건설설계사업비로 공급하도록 하며 당해년도에 완성된 설계는 다음해 시공계획에 맞물려 지출된 설계사업비가 잠겨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는 반드시 시공에 앞세워 진행하여야 하며 건설시공은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자금의 규모도 크므로 건설설계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건설설계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만 기본건설자금을 공급하는 엄격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보다 적은 자금으로 보다 많은 건설을 진행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 가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건설자금공급사업을 개선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공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것이다.

기본건설자금지출은 국가예산으로부터 기본건설자금을 시공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법과 건설주를 통하여 시공주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예산으로부터 기본건설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은 시공주기업소를 단위로 하여 자금공급계획을 세우고 중앙은행에 적립하여 놓은 기본건설자금원천돈자리를 통하여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본건설자금지출에서 복잡성을 피하고 시공주기업소의 자금리용에 대한 은행의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건설주의 책임성을 높이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진다.

건설주를 통하여 시공주에게 기본건설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기본건설자금공급계획을 건설주기업소를 단위로 하여 세우고 건설주가 국가예산에서 기본건설자금을 받아서 시공주에게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건설주기업소가 시공주기업소의 자금신청문건에 기초하여 국가예산에서 기본건설자금을 받아 건설감독기관에서 확인한 공사실적에 따라 지불위탁 또는 지불청구의 방법으로 시공주에게 자금을 공급한다. 이 방법은 기본건설자금의 공급과 리용에서 건설주기업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기본건설투자계획에 맞물린 대상에 대한 기본건설자금보장에서 재정기관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금공급에서 기동성과 원에 의한 은행통제를 진행하는데서는 일정한 제한성을 가진다.

현행 예산집행실천에서는 건설주가 기본건설자금을 국가예산에서 받아 시공주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건설자금공급사업을 개선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

---

으로 건설자금을 극력 절약하는것이다.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절약사업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지만 하나의 대상공사에만도 방대한 물자와 로력이 요구되는 건설부문에서의 절약투쟁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한w의 전기, 한g의 세멘트,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부문에서 건설기준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설계예산작성에서는 건설용자재소비기준, 보수용자재소비기

준, 노동보호용자재소비기준과 같은 소비기준에 엄격히 준하여 예산자금을 할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에서 오작시공, 반복시공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오작시공, 반복시공에 대한 추가자금지출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추가자금에 대한 자금지불청구에서 복잡한 수속절차를 거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모든 경제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자금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여야 할것이다.